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 새롭게 조성... 내달 1일 개방

# 지식 · 문화 · 휴식은 이곳에서

공간 설계는 영·정조 시대 문인화 작품 '책가도'에서 영감 얻어 방문시 무형유산 전문도서·무형유산축제 상영작 등 열람 가능 3월부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내일 개관 기념 무료 특별강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지식과 문화, 휴식이 있는 종합도서관인 '라키비움(Larchiveum) 책마루'를 새롭게 조성해 오는 2월 1일 개방한다. 라키비움 책마루는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이곳은 독특한 공간 설계와 구성으로도 눈길을 끈다. 공간 설계는 임호균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가 조선 영·정조 시대의 문인화 작품의 하나인 책가도(冊架圖)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책마루 현관은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각자장(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김작한 보유자가 직접 제작했으며, 공간 내부의 가구는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유진경·홍승효 이수자들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향취가 느껴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방문객들은 무형유산 관련 전문도서와 기증도서 등 2만 여권의 도서와 국제무형유산상속제 상영작품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무형유산원은 전국 800여 공공도서관 회원정보를 연계한 책이음 서비스, 국외도서

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서비스, 동호인 소모임을 위한 회의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유자들이 직접 기증하거나 기탁받은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그들의 삶과 예술을 소개하는 특별서가 '이달의 인간문화재'도 운영한다. 오는 3월부터는 지역의 작은 책방과 함께 교양강좌, 도서 세미나, 전문가 해설이 있는 영화 상영회, 명사 초청 인문학 특강, 고전 강독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라키비움 책마루 개관을 기념한 특별 강연도 마련된다. 정식 개관에 앞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덕수 교수가 '세계 속의 사물놀이'라는 강연을 펼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라키비움 책마루 누리집(http://library.nihc.go.kr)을 통해 행사 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정해은 기자

## 순창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공모 선정

드림필 오케스트라와 사업 추진 "6000만원 상당 공연 유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



라북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연간 30여 회 이상의 공연은 물론 청소년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2016년부터 순창의 상주단체로 선정된 이래 20여 차례 음악공연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클래식 음악의 한계를 넘어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서기 위해 100여곡의 대중가요를 편곡 연주하는 등 오케스트라의 대중화에 공헌을 해왔다. 또 손영호, 김동식, 문자희 등 유명 성악가와 안치환, 유열, 강은철 등 대중 가수들과의 협연을 시도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유치하게 되어 문화융성 플랜에 청신호가 켜졌고 연간 5회 가량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연주를 선사 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음악공연 외에도 연극, 뮤지컬, 국악극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해서 올 한 해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드림필 오케스트라(대표 김재원)는 전

## 2018년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8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올해는 1,79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56만여 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북도는 약 70억 원의 사업비로 10만 1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는 6세(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6만 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은 올해부터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국내 4

대 스포츠경기 관람을 비롯해 여행, 숙박, 문화체험, 고속·시외버스, 철도, 약기점, 각종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판매점 등의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개인에게 발급된 카드는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농협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로 1카드당 10만원까지 입금·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된 금액에 한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기간은 오는 2월 1일~11월 30일까지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을 통해 카드발급과 재충전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영봉에 눈꽃처럼 피어난 덕유산의 역사·문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2권 1세트로 2년간 걸친 역사문화 발굴사업 결실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덕유산의 역사·문화를 발굴 집성한 '영봉(靈峯)에 눈꽃처럼 피어난 덕유산의 역사와 문화(2권 1세트)'를 간행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기본사료 등 모든 문헌자료 가운데 덕유산 기록을 조사하고 사료비판 및 역사적 검토 등 전문 연구를 진행한 역사문화 발굴 사업의 결과가 간행된 것으로, 누구든 덕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쉽게 접하면서도 본래의 역사성과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고, 일반대중, 공원관리자, 전문가 등 누구나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총 2권 1세트로 구성된 이 책의 제1권 해설서는 덕유산을 찾는 일반대중을 위한 책이며, 제2권 자료집은 공원관리자, 전문가가 연구, 관리 용도로 볼 수 있는 편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각 권은 서로 횡으로도 연결되어 해설서를 보다가 근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집을, 반대로 자료집을 보다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 해설서를 볼 수 있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무우=전문 기자

이 책은 국립공원 관리체로서 사무소가 미개발 인문자원을 발굴 보전하고 전문 관리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2년간에 걸쳐 추진한 역사문화 발굴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를 통하여 덕유산의 의미를 전파하고 감명 깊은 탐방을 유도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탐방해설에 활용하는 한편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갈 예정이다. 김재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무소는 앞으로도 역사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덕유산의 의미를 전달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우=전문 기자



##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도립여성중고 내달 2일 졸업식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유진순)의 제18회 졸업식이 내달 2일 오전 10시 교내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56명(중학교 23명·고등학교 33명)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게 되며, 학교장상(2명), 도지사 표창(2명), 교육감상(2명), 도의회 의장상(2명), 동문회장상(2명) 등 85명이 수상의 기쁨을

맞는다. 3년 종합 학업성적 최우수자인 고3 강희숙(61), 종3 윤진순(54)씨는 영예의 학교장상을, 3년 동안 매 학년 개근한 성실학구과 9명은 개근상을 수상한다. 이번 졸업생은 40세의 최연소 학생(고3 경애리)부터 80세의 최고령자 학생(고3 유순희·최규희)에 이르기까지 배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의욕과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한 끝에 값진 졸업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한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정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로, 2018년도 신입생을 2월 10일까지 모집 중이다. /정해은 기자

은빛 설원을 가로질러

제 4 회 전국 스키 · 스노보드 대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2018년 1월 30일(화)~1월 3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주관: 전북스키협회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